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8월 4일(금)
(음력 6월 13일)

Пятница

4 августа 2017 г.

№ 30(11674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지난 7월 31일(월) 한국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을 수장으로 한 북방경제원정단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사진 주정부 제공)

송영길 국회의원, 북방경제원정단 구성해 사할린 방문

지난 7월 31일(월) 한국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을 수장으로 한 북방경제원정단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북방경제원정단'은 올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특사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정재호 국회의원, 북방경제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 30분 원정단 대표 7명은 사할린주 정부청사 주지사실에서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코제마코 주지사는 송영길 의원을 환영하며 "한-러 관계의 강화 측면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의원님의 개인적인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민족 친선>훈장을 수여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표명하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러·한 관계 강화에 중점을 돌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사할린주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2016년에 양 지역 간 교역액은 38억 달러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 교역액은 20억 달러를 넘었다"고 주지사는 밝혔다. 또한 "사할린에 한국의 투자액도 증가되고 있어 사할린 경제 분야에 26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관광객 유치에 협조하는 회사도 있고 올해 5월에 거의 2000명의 한국 관광객이 탑승한 크루즈가 사할린을 방문하여 한국 측 평가가 좋았다"고 주지사는 전했다.

주지사는 "양 지역은 건설, 광산업 등에서 협력하고 있고 많은 수산물들을 한국에 수출하기도 하고 그의 스포츠문화 교류도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사할린에서

제1회 유소년 아시안컵(아이스하키)을 개최했는데 이에 러시아, 한국, 일본, 중국 학생들이 참여했다. 현재 한국 기업들과 사할린 기업인들이 서로 잘 협력하고 있으며 사할린에서는 선도개발지역과 자유항이 선정되었는데 한국 측에도 이에 투자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알리며 한국 측에 투자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 점은 사할린의 대대적인 농촌경제 분야의 기획으로 온실단지 건설, 사할린 주와 공동의 건축자재 생산 조식을 언급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지사님이 이렇게 반가이 맞아주셔서 반갑다"며 "사할린은 일제 때 징용에 끌려간 한인들의 아픔과 애환이 서린 곳인데... 주지사님께서 여러가지로 우리 한인들을 배려하는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함부르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만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었다. 송 의원은 우리 한·러 경제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바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에 주지사와 면담에 참석하는 분들 모두가 위원회를 같이 하는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함께 주지사와 면담에 참석한 대표 중에는 의원 외에는 김태유 서울대 교수, 안완기 한국가스공사 제1부사장, 이태림 변호사 등이다.

송 의원이 "이번 동방포럼에 두 대

령의 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캄차트카,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나호드카 등지에서 각 협력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북방원정단은 사할린에 가스 같은 에너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원정단은 관광, 수산업에도 관심을 보이며 송영길 의원은 "사할린과 관계발전을 향한 대단한 잠재력이 보인다.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에 공동 기획 실시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건축, 관광 기타 부문에도 관심이 간다. 이러한 지역에 우리는 투자할 준비가 되었다. 향후 이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강화가 촉진될 거라 확신한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동방포럼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코제마코 주지사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알리고 사할린에 진출할 한국업체들과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북방경제원정단도 러시아 사할린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사를 밝혔다.

이번 면담에 사할린 측에서는 벨리크 알렉세이 사할린주 개발부 장관, 한드미트리 주 개발부 제1아시아국 국장, 콘드라치예와 엘레나 러시아 외무성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 대행이 참석했다.

캄차트카부터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을 시작한 북방경제원정단은 8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 5일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순신 기자)

단신

사할린주, 연어 2047톤 어획

사할린과 쿠릴 수산업체들의 연어 어획량은 2046,71톤에 달했다.

세웨로쿠릴스크 구역 수산업체들의 어획량은 1754톤에 달했다.

8월 1일 현재 오하 수산업체들은 연송어 성어기 시작부터 연어 356톤, 노글리키 수업체들은 84여 톤, 포로나이스크 수산업체들은 27,5톤, 마카로브구역 수산업체들은 5톤, 스미르티흐 구역에서는 2톤의 어획량을 보였다.

올해 사할린-쿠릴 종합 수산업체들에게는 연어 어획량 3만1900톤이 허가되었다.

사할린주, 상반기 13억 달러 가량의 액화 천연가스 수출

사할린 세관은 대외무역협약의 일환으로 2017년 상반기에 18566개의 조성된 물품에 따른 2658개의 물품에 대한 세관통과 신고가 작성되었다.

2017년 상반기 액화천연가스 혼합 제품들 84%(미화 23억 달러, 5002,45톤)가 대외무역으로 전환하는 제품이다.

대외무역협정으로 사할린 수출량과 관련하여 액화천연가스에 따른 수입품은 86,8%로 미화 9억26300만 달러이고 액화천연가스 수출품은 82,2%(총 수출량)로 미화14억 달러에 달한다. 액화천연가스의 기본 수출량은 10억 9353100 m³ 로 미화13억 달러에 달한다고 사할린 세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국립대, 원주민 소수민족문화언어학과 개설

2018년 9월 1일부터 사할린국립종합대학은 님호어 교사를 배출시킬 사할린 북방 원주민 소수민족을 위한 특별한 북방 소수민족문화언어학과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립대에서는 학과 교육과정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중이다. 이 학과에서는 4가지 소수민족 언어인 님호, 우일타, 나나이 그리고 에벡크 언어를 가르칠 전망이다. 이 학과를 지도할 교수진으로는 유명한 님호언어의 알파벳 창조자인 블라지미르 산기 작가를 포함해 소수민족어를 잘하는 사할린의 교사들과 게르첸 북방대학 졸업생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해졌다.

북방 소수민족 청소년 15명은 민족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표명해 왔었다.

개설될 소수민족문화언어학과는 4개 소수민족언어를 연구, 보전하려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할린국립대에 이와 같은 학과 개설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게르첸 북방대학이 지원하고 올해 3월에 사할린의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국 라이온스 클럽, 사할린에서 봉사

한국 국제라이온스 354-B지구 대표단(14명)이 8월 3일 사할린을 방문했다.

사할린 가가린 라이온스 클럽(회장 천연근)과 함께 한국 자원봉사단은 시네고르스크에 김윤덕 할아버지와 어린이 5명을 입양한 체호브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족을 찾아 봉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유골 봉환 예비 대상 한인묘지 현황 파악

한국 행정자치부와 재향군인회 대표단(단장 김명수 행정자치부 부장)이 제5차 유골봉환 예비대상 한인묘지 현황(17위) 조사로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사할린을 방문했다.

이들은 뽀레치에, 홀스크, 고르노사위드스크, 쉘부니노, 포로나이스크, 마카로브, 코르사코브, 티바츠코예,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 한인묘지를 찾아 지역 관계자들과 발굴 일정 등을 협의했다.

8월 3일(목) 오전에 대표단은 주정부, 러시아 외무부 사할린대표부,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출장소 관계자들과 유골봉환 협력과 협조에 대한 공



식 일정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올해 일제에 강제동원된 사할린한인 유골 19위를 봉환할 예정이었는데 가족들의 취소, 서류 등으로 14위를 모실 예정입니다."라고 주한인회 측에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이 밝혔다. "3 가족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유골도 한국에 안치하고 싶다 해서 이들도 같이 모시게 된다."고 김 회장이 덧붙였다.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은 한국 정부의 부담으로 봉환되지만 이들의 배우자는 무상 봉환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후손들이 개인적 부담으로 모국으로 모시고 있다.

올해 사할린 강제동원 동포 희생자 유골 봉환 추도식과 환송식은 9월 중순에 이뤄질 전망이다.

(배순신기자)

<우리 함께>지역축제가 주축제로 발전

지난 29일(토) 마카로브시 야외공연장에서 제4회 민족 간 축제 '우리 함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축제는 지난 2014년 고려인이주 1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래 올해 4회 차를 맞이하였으며, 축제 사상 최대 참석자와 관객객이 모였다.

출연자로는 사할린주 내 7개 도서(마카로브, 아니와, 네웰스크, 포로나이스크, 와흐루세브, 토마리, 유즈노사할린스크)대표로 17개 팀 외 제주시 탈춤극단 '제주두루나눔'이 참석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프로그램은 7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외장에는 여러 주제의 전시도 열렸고 다양한 민족놀이도 펼쳐졌다.

이날 축제 참가자들을 라리사 드라구노와 사할린주문화부 장관 대행, 안드레이 크라스콥스키 마카로브시장,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회 회장 등이 환영했다.

마카로브 축제는 지난 3년 간 연속적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한 것을 인정받아, 올해부터 사할린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행사로 발전하였다.

축제는 '단합된 사회문화 공간의 형성, 민족 및 국가 간의 문화 교류 증진 및 유지, 민족전통문화를 통한 한인 디아스포라와 러시아인의 역사와 풍습에 대한 이해 제고'라는 취지에 걸맞게 사할린의 각 지역 및 다민족이 함께 어울리는 장이 되고 있다.

더욱이 2015년부터 본 축제를 통해 인연을 맺은 '제주두루나눔'은 올해로 세 번째 축제에 특별손님으로 참석하



고 있으며, 크라스콥스키 마카로브 시장도 마카로브 민족공연단을 이끌고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들불축제에 2년 연속 참가하는 등 국제우호관계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두루나눔'을 주축으로 조직된 '사할린 마카로브 박물관 징용역사관 건립 기금 공동 모금회'가 한국의 일반 시민 201명으로부터 모금한 20,000달러를 마카로브시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5년에 개관한 마카로브시 박물관장은 마카로브 시의회 의원인 고영순 시한인회 회장이며, 박물관 내에는 축제의 이름을 딴 전시실도 별도로 마련되어 축제의 역사 또한 기록되고 있다. 사할린주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 마카로브 민족 간 축제 '우리 함께'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글/이 소나, 사진/강송희)

이모저모

러시아에서 전자비자 발급

8월 1일부터 세계 18개국 국민들이 전자비자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올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은 전문사이트에서 지원한다. "극동지역에 독특한 제도 정착과 전례없는 결정을 적용했다. 전자비자 도입은 국내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도구로 극동지역부터 시작되었다."고 러시아연방 극동지역개발부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장관은 강조하며 이와 같은 비자로 자유항구 제도가 실시되는 여러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전자비자 통관 업무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두 곳 통관소에서 이뤄지는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와 크네위치 공항을 통해 할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는 이와 같은 통관소가 4개로 확대되면서 캄차트카주와 사할린 주의 방문도 가능해진다.

전자비자 발급 대상국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를 포함해 18개국으로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관 시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러시아 외무성 전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발송서류의 항목 작성 후 클릭하면 3일 내에 회신이 오고 4일 만에 발급된다."라고 러시아극동지역개발부 장관은 덧붙였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통과소를 통해 전자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방문자의 국적과 국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선정했다. 단순비자 조치로 브루나이, 인도,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멕시코, 싱가포르, 일본, 알제리, 바호레인,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모로코, 아랍 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와 터키다.

전자비자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된다.

В России стартовала выдача электронных виз

С 1 августа граждане 18 стран смогут прилететь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виз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н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м сайте.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тал территорией применения бес-

прецедентных решений и внедрения уникальных механизмов. Введение электронной визы – новаторский инструмент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И начнется внедрение этого инструмента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по такой визе можно будет приехать в любой регион,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ого установлен режим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начале по новой схеме заработают первые два пункта пропуск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визе можно будет приехать через морской пункт пропуск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аэропорт Кневичи. С января 2018 года таких пунктов пропуска станет четыре. Можно будет посетить также Камчатку 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 Иностранцы граждане 18 государств, включая Японию, Китай, Сингапур, смогут оформить визу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Не нужно посещать консуль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беспокоиться о прохождении собеседования. За 4 дня заполняется заявление н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м сайте МИД России, прикрепить фотографию и кликнуть на значок отправки документа. Ответ придет в течение 3 дней, – уточнил глава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Перечень стран,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х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Россию по электронным визам через пункты пропуска в Свободном порту Владивосток, был определен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и. Упрощенным визовым порядком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жители таких стран как: Бруней, Индия, КНР, КНДР, Мексика, Сингапур, Япония, Алжир, Бахрейн, Иран, Катар, Кувейт, Марокко, ОАЭ, Оман,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Тунис и Турция.

Виза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в течение 30 дней с момента ее оформления. Электронная виза выдается бесплатно, без взимания каких-либо сборов.

유즈노사할린스크, 세계 원주민의 날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세계 원주민의 날을 널리 기념한다.

시행정부 내 정책관리국의 정보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쿠즈네초브' 시도서관에서는 <사할린의 소수 원주민>도서 전시회가 열린다.

8월 9일 12시에는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원주민들이 제작한 실용장식품 전람회가 시작되고 이와 함께 문화인류센터에 <으흐'신화 사람들(사할린 사람들)> 예술단의 놀이공연이 진행된다.

13일 11시에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야외 마당에서는 명절행사들이 펼쳐지는데 민족요리 전시와 시식

및 장인들의 실용장식품과 기념품 박람회로 개막한다. 박람회는 제3회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여성대회 <세웨랴노츠크 2017(북방의 여인)>콩쿠르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시행정부는 사할린 북방 소수민족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원주민, 시민과 도시의 방문객들을 이명절행사에 초대하고 있다.

Всемирный день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отметя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широко отметят Всемирный день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управлении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с 4 по 11 августа в город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 Кузнецов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книжная выставка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Сахалина».

9 август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в 12:00 начнется экскурсия, посвященная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 проведением концертно-игровой программы твор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Этно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Люди Ых миф» («Люди Сахалина»).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ртуют 13 августа в 11:00 в музее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Они начнутся с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дегустации блюд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и ярмарки-продажи сувенирной продукции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 рамках III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среди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еверяночка-2017».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этносов,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риглашают посетить эти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абориген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а.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 신학년 준비 협조

8월 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신학년 준비 도와 주기>란 연례 자원봉사 활동이 시작되었다. 시 청년이니셔티브 센터가 개최한 행사의 주요 목적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신학년 준비를 돕는 데 있다. 올해 이 활동은 <가족들과 도시는 함께 성장한다.>라는 콩쿠르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정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자원봉사센터의 약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예정으로 이들은 시민들에게 활동에 참가 방법을 설명할 참이다. (8면에 계속)

홉스크 공연으로 <한 가정에서>프로젝트 실시

지난 7월 27일(목) 저녁 6시 홉스크 중앙문화회관에서 사할린주한인회 주최, 사할린주정부 후원, 홉스크 시행정부·시한인회 협찬 아래 <한 가정에서>공연이 개최되었다.

박순옥 회장, 홉스크시 수호메소브 안드레이 시장, 홉스크시 <예지나야 러시아>당 오시펜코 이고리 지부장이 3각 협력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포자르스코예(미주호) 27인 한



공연 출연자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소속 예술단과 아티스트들(<아리랑>무용단, <하늘>사물놀이팀, 강팔용 가수, 폴리나 랍추크 아동가수 등), 홉스크문화회관 소속 예술단들이 멋진 무대를 가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알려졌다.

공연 식순에 들어가기 전에 사할린주한인회



인피살자 추념비 현장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박순옥 회장은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한 가정에서>사회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공연을 주내 다른 도시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본사기자)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그는 또한 내가 '무국적자인 당신은 스스로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당연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 '까레얀카!'라 외쳤다.

'당연히 한국사람이다. 까레얀카! 그래서 이날까지 러시아 국적도 안 받고 살아온 거다. 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당시 나는 김명자 씨와의 짧은 만남을 끝내며 '이토록 한국인임을 확신하고 한국인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한국인이 아니라고 낙인을 찍는 국가가 과연 정상인가' 하고 대한민국을 향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김씨가 국적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미래가 낙관적인 것만도 아니다. 한국 정부가 영주귀국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1945년 이후에 출생한 한인들이 한국에 귀국해 정착하기란 어렵고, 더군다나 국적 확인소송과 함께 진행한 위로금 지급 소송에서는 패소해(현재 항소중) 위로금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국적 확인소송에서 재판부의 긍정적인 판결을 끌어낸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성과이다.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사할린 거주 무국적 한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 국민 보호 의무 및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판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김명자 씨 등 무국적 한인들이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사할린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할린 한인 무국적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 수는 얼마나 되며, 그들이 한국으로의 귀국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사할린에 거주하길 원하는지 등을 먼저 조사한 후에, 그들이 한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또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동시에 국적확인 소송 이전부터 사할린 한인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온 '이중국적' 허용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사할린 한인들이 이중국적 허용을 바라는 이유는 원래 비자 취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비자 문제는 2014년 비자면제협정이 발효되면서 해소되었으나, 위로금 지급 문제는 현재 소송 중인 데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이다.

사할린 한인의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해, 러시아는 이미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기에 문제될 게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발적'으로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할린 한인의 국적 선택은 시대 상황에 따른 구조적, 강제적 요소가 강했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부모와 본인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규정된 대한민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나 소련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까.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2세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어서 더 많은 한인들이 강제 징용 희생자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결코 얼토당토한 소리가 아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다물운동본부, 사할린 순례

지난 1일(화) 다물운동본부(본부장 강기준)의 제14차 민족통일 국토순례단(51명)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영광과 아픔의 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슬로건

으로 이번 순례로 사할린부터 시작하여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현장을 4박5일 동안 5일 귀국한다.

다물이란 "잃어버린 우리의 옛 것을 되찾자는 옛 고국려 말입니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민족정기를 되살려 민족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으로 다물운동을 창제했습니다".

다물운동본부는 한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운동단체로서 여러 기업에 중사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민족운동단체협의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민족의 미래와 우리

원장, 김춘자 우리말방송 국장, 배 익토리아 새고려신문사 사장을 초대하여 교육과 화합의 자리로 마련된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우리말방송국이 제작한 <위령비> 다큐 상영이 있는 후 다물 운동본부와 사할린 대표들의 인사 뒤, 김주환 교육원장은 간단히 러시아어로 인사를 전하고,



제14차 민족통일 국토순례 사할린-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 "영광과 아픔의 현장에서 미래를 준비하자" (일차) 2017년 8월 1일 ~ 5일 주관·후원: 다물민족운동본부·민병대·한국북방학회

사회의 책임있는 단체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순례단은 코르사코브 사할린한인회생 위령비에 참배하고 저녁에는 사할린한인사회계 대표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 김웨철 주한인여성회 회장, 김주환 사할린한국원

사할린 한인사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다물운동본부 회원들은 순례를 여러 번 했지만 러시아 극동은 처음이라며 사할린 한인의 애환을 마음에 담고 앞으로 사할린을 자주 찾겠다고 했다.

(본사기자)

제주두루나눔, 즐거운 세경놀이로 웃음 터쳐

마카로브 일정을 마친 <제주두루나눔>탈놀이단체는 지난 31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공연을 가졌다.

사단법인 <제주 한문화 네트워크>의 주최, 주한인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 무대는 세경놀이로 꾸며졌다.

제주의 입춘굿과 탈놀이를 포함한 공연의 이야기거리는 즐거움과 웃음 속에 진행되었다. 공연은 사할린주한인회(회장 박순옥)가 마련한 만찬으로 이어졌다.

(취재: 이에식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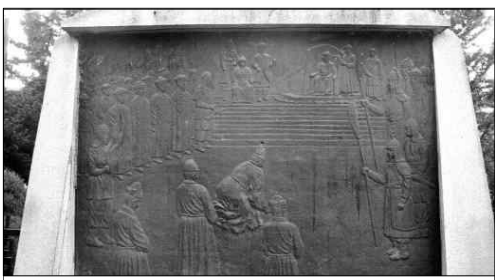
Для маньчжурских правителей не было секретом, как относится к ним чосонская элита (если уж они свергли вана лишь за то, что он вел слишком «дружелюбную» политику по отношению к «варварам»). Поэтому маньчжурский император Абахай решил нанести Корее новый удар и окончательно лишить ее возможности сопротивляться.

Второе маньчжурское вторжение в страну произошло зимой 1637 г. События развивались стремительно. 100-тысячная маньчжурская армия под предводительством Абахай (он решил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озглавить поход) перешла реку Амноккан и, не тратя времени на осаду встречавшихся по пути крепостей, сразу двинулись к столице Сеулу. Всего лишь через 6 дней передовые отряды конницы уже были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города. Королевский двор прибегнул к уже испытанному средству обороны – поспешно выехал на о. Канхвадо, бросил столицу врагу. Ван вслед за двором тоже направился на Канхвадо, но доехать не успел – путь был уже перерезан маньчжурами. Поэтому он вместе с наследником и частью сановников был вынужден укрыться в горной крепости Намхансан, которая и была осаждена маньчжурами. В распоряж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вана был 30-тысячный гарнизон и запасы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на 2 месяца.

Как только началась осада, в корей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началась дискуссия о том, что же следует делать. Сначала вверх одержали сторонники войны,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переговоры с маньчжурами вели с первых дней осады. Несколько попыток штурма корейцы отбили успешно, однако маньчжуры полностью блокировали крепость, отрезав ее от внешнего мира. К тому же надежды на подкрепление не было никакой.

Вскоре в крепости узнали, что Канхвадо захвачен маньчжурским десантом. Многие находившиеся там чиновники и члены правящего дома погибли или попали в плен, причем среди пленных были жена и двое сыновей вана. Существовавшие до этого надежды на помощь со стороны минского Китая оказались иллюзорными. Китайская армия была занята отчаянной и безуспешной борьбой с повстанцами в собственной стране и не могла прийти на помощь Корее. Китайская эскадра, правда, двинулась к берегам Кореи, но вскоре из-за штормовой погоды была вынуждена вернуться на базу.

После этих событий падение осажденного Намхансана было лишь вопросом времени.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в крепости взяли верх сторонники капитуляции. После полутора месяцев осады Инджо покинул крепость и отправился в Сеул, где ему предстояло в буквальном смысле склониться перед маньчжурским правителем (тщательный ритуал капитуляции включал в себя и земные поклоны новому сюзеру)..



Стела «Капитуляция Инджо» в районе Самчхон-дон (Сеул).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мерена расшир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Южной Кореей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б укреплени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гуманитарных связей достигнуты сегодня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области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посланником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н Ён Гилем,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ую делегацию Север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Открывая встречу,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значимость того, что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Мун Чжэ Ином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курса укреп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Немаловажная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тводится развитию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лагает максимальные усилия к тому, чтобы развивать взаимовыгодны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гуманитарные связ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а протяжении ряда лет наша страна входит в число ведущих торговых партнер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сновная доля 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работает» в таки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анспорт, оптовая торговля. Корейские партнеры являются активными покупа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углеводородов,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а также угля. М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закупаем в Стране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оборудование, изделия из металлов, продукцию хи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отмети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Он также добавил, что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ес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регионе реализуется целый ряд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туризма,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ходе встречи зарубежным коллегам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ия в реализации некоторых из них. Например,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тепл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ечь шла и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а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совместно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части поставок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Daewoo», «Samsung» и «LG» для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Мы видим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для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Уверен, что мой визит на Сахалин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альнейшему укреплению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Безусловно,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расширении всего спектр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также в реал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ам интересны сферы туриз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мы готовы вкладывать в регион свои инвестиции, - подчеркнул в ответном слове Сон Ён Гиль.

(Пресс-цен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откой строкой

В СЕМЬЕ ЕДИНОЙ

27 июля 2017г. в Центральн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Холмска прошел 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Централь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города Холмска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В семье еди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й был поддерж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ед концертом состоялось подписание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Холмским городским округом (мэр А.Сухомесов), Холмским местным отделением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секретарь И.Осипенко) 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зидент Пак Сун Ок). В соглашении, в частности, говоритс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поддержании порядк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мятника 27 корейцам-жертвам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близ с.Пожарское.

В ПРЕДВЕРИИ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27 июля по 3 августа на Сахалин с рабочей поездкой побы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и солдатской ветеран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оследн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подготовки к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ю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ах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нудительно завезенных для работ на Сахалин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е 14 останков.

С этой целью делегация посетила Углегорский, Макаровский, Поронай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Анивский и другие районы.

Делегация встретилась такж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МИД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Активное содействие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роекта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я на Родине» со стороны РООСК оказывает Ким Хон Д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Ы ВМЕСТЕ!

29 июля в Макарове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прошел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Мы вместе!». Инициатором и одним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1-го фестиваля был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За 4 года фестиваль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ширил свои границы, и в этом году получил статус областного.

Фестиваль стал брендом Макарова, и проводится он с целью сохранения и укреп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позволя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и культур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и русскими народ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На него съезжа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городов и посёлков Сахалина. На сцене звучат русские, корейские, киргизские, узбек-

ские, бурятские, нанайские, армянские песни.

Уже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фольклорный ансамбль с острова Чеджудо (Южная Корея). Стоит отметить,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одолжалась 7 часов.

На фестива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ультурная сеть Чеджу», передали пожертвования, собра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Макаровск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ТАНЦЫ В МАСКАХ И ОБЯДОВЫЕ СЦЕНКИ НА СЦЕНЕ ККЦ

31 июля, в понедельник,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фольклорный ансамбль «Дедодурунанум» выступил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скрометный юмор, танцы в масках и обрядовые сценки – концерт удался на славу!

ОРГАНИЗАЦИЯ «ДАМУЛЬ» ПОБЫВАЛА НА САХАЛИНЕ

Более 50 человек прибыли на Сахалин из Южной Кореи, чтобы узнать об истории и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се они члены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амуль»,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проблемами объединения Севера и Юга, подготовкой лидеров 21 века, изучением истории своего народа.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членов этой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являются работниками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таких как SK, Самсунг, Хендэ.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евер отказался от предложения Юга совместно отпраздновать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Север отказался от предложения Юга провести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случаю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15 август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в сре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омитет по реализации межкорей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от 15 июля 2000 года.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омитета, 28 июля из Пхеньяна по факсу поступило сообщение о намер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провести отдельное празднование. Причину своего отказа Пхеньян объясняет проведением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мандно-штабных учений Ulchi Freedom Guardian.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новых санкциях против России, Ирана и СК

2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санкциях против России, Ирана и СК, одобренный 25 июля Палато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 утвержденный 27 июля Сенато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а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нацелены на полное перекрытие каналов поступления валюты, поставок сырой нефти и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в СК в целях усиления давления на её экономику и армию, запрет на экспор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ограничение движения судов, принадлежащих СК и странам, которые отказываются выполнять санкции ООН, закрыт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торговых и игровых сайтов. Между тем, в Конгрессе США высказываются мнения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альнейшего ужесточения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ена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делам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Кори Гарднер призвал ввести торговое эмбарго в отношении СК, поскольку возможности разрешения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проблем Пхеньяна другими путями исчерпаны.

Фильм «Остров Хасима» показывает историю трагедии этого острова

28 июля нов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Остров Хасима» или The Battleship Island, рассказывающий об истории агрессии Япон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и во время протектората, показали в Париже. Специальный показ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ЮНЕСКО и иностран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в Париже. Показ устроил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медиакомпания CJ Entertainment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естной профильной компании Metropolitan Filmexport. Мероприятие направлено на освещение этого периода истории Кореи и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я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 проблеме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а этом острове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труда корейцев. В 2008 году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включить остров Хасима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возражали, указывая на страдания корейцев,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для тяжелых работ.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в 2015 году он был включён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 составе объекта «Объекты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периода Мэйдзи». 25 июля специальный показ фильма был устроен в Сеуле для 160 иностранных дипломато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июль, права на показ картины были проданы в 155 стран. На прошлых выходных «Остров Хасима» посмотрели в РК 1 млн 930 тыс. человек. Накопле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превысил отметку в 4 млн человек.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ввели новую услугу

С 1 август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начали предоставлять новую услугу по хранению или отправке домой предметов, запрещённых к проносу на борт самолета. Данная услуга организована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аэропорта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Прежде обнаруженные при досмотре запрещённые предметы предлагалось просто выбросить. Теперь же их можно передать на хранение прямо в аэропорту за 3 тыс. вон или 2,6 доллара в сутки. Указав адрес, можно отправить предмет посылкой домо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3 млн случаев обнаружения у пассажиров запрещённых вещей. Ожидается, что ежегодно этой услугой буд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около 130 тыс. пассажиров. (RKI)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РЕПАТРИАЦИЯ КОРЕЙЦЕВ ИЗ ЯПОНИИ

За пять лет с 1944 и 1949 гг. насел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выросло на 2,54 млн.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за счет 1,8 млн. репатриантов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и 740 тысяч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страны. Прибывшие из Японии корейцы, составляли три четверти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репатриантов.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граница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оставалась относительно прозрачной, хотя советск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ытались остановить взаимное движение людей, однако этого им так и не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Проходившие в 1945-1950 гг.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земельная реформа, национализац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азгром не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и христиа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ызвали недовольство у многи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стали просачиваться на Юг.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1950-1953 гг. также привела к массовым миграциям. Сотни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покинули свои родные места, и поскольку война привела к паралич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едомств, точных данных о числе беженцев из северо-



корейских провинций нет. После 1953 г. граница между обеими частями Кореи оказалась закрытой.

В конце 2-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Японии оставались около 2 млн. корейцев. Трудно установить точное число корейцев, возвратившихся в Корею сразу после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и и освобождения страны. Согласно южнокорейским данным более 1,4 миллиона корейцев возвратились домой в мае 1949. Однако в Японии оставались около 650,000 корейцев.

Первый период репатриации корейцев называется «периодом спонтанного массового ухода». С 15-ого августа по 30 ноября 1945 г., в течение трех или трех с половиной месяцев, около 800 тыс. корейцев вернулись в Корею, из них 525 тыс. составили неконтролируемую часть мигрантов.

Во второй период – с 1-ого декабря 1945 – по конец 1946 года, около 525 тыс. репатриантов прошли через приемные центры по отправке в Корею. Несмотря на строгие меры контроля над репатриантами, примерно 50 тыс. корейцев перебрались на родину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Третий период репатриации начался с 1-ого января 1947 г. и закончился в конце лета 1948 года. Американская воен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иняла инструкцию,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репатриация ограничивалась тремя категориями корейцев. Во-первых, теми, кто прибыл в Японию нелегально и был задержан властями. Во-вторых, кому было вынесено решение Союзного оккупационного суда о депортации из страны. В-третьих, всеми теми, кто не лишился прав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подал заявление об отправке на родину. Всего с 1-ого января до 30 октября 1947 г. в Корею возвратились 7,551 человек, а с 1-ого ноября 1947 г. до 31 августа 1948 г. – 5,006 человек.

Четвертый,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начался с 1 сентября 1948 г. и завершается в конце 1949 г. За этот промежуток времени лишь незначительное число – 6,590 корейцев вернулись на родину.

По данным японской статистики на 1964 г.,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корейцев в Японии, составившего 578, 572 человека 97 процентов являлись выходцами с Юга Кореи, а с Севера – лишь 2%. (относительно места происхождения 1% корейцев данных не имеется).

Репатриация корейцев из Японии происходила на Север Кореи, и решающей причиной была не география происхождения, а полит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а именно активные действия Пхеньяна и лидеров «Чхорён». 8 сентября 1958 г. Ким Ир Сен сделал заявление,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ветствует возвращение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в Японии. Он повторил это же заявление в январе 1959, называя репатриацию «священным правом и гуманитарной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корейцев в Японии «вернуться на грудь родины в поисках достойной жизни». В 1958 группа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в г. Кавасаки, пригороде японской столицы, послала письм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 просьбой о репатриации на Север. При поддержке японских коммунистов началась кампания по лоббированию репатриации корейцев из Японии в КНДР. В итоге, на предлож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ереданном япон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о готовности принять репатриантов, в феврале 1959 г. японский парламент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репатриировать японских корейцев, желающих вернуться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ри посредничеств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в августе 1959 Пхеньян и Токио согласились репатриировать корейцев из Япони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а добровольной основе. Основная причина исхода корейцев из Японии заключалась в бедственном положении корейцев в Японии, испытывавших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и дискриминацию по этническому признаку. В то же время в репатриации япо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ажную роль играли «притягивающие» стимул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 тот момент при помощ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достигла успехов в послевоенном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По-новому в КНДР строилась социальная жизнь, в жизнь претворялись реформы, коснувшиеся всех сфер жизни,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показывали стабильное развитие. В 1957 г.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чало выделять средства на поддержку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в Японии, что было воспринято как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мощи экономик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ее заботлив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Однако рост экономики и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ыли не единственной причи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в КНДР, не менее важным оказалось охватившее корейцев Японии чувства патриотизма, принявшего форму постколониальн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В самой КНДР в этот период народ был полон трудового энтузиазма и веры в светлое будущее.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в Японии с конца 2-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до 1950-х смотрели скорее на Север, чем на Юг, как на воплощ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а начало 1955 г. по данным японской полиции около 90% корейцев в Японии поддерживал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послевоенный период большинство оставшихся в Японии корейцев не видело перспектив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в стране и многие, особенно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считали, что скоро Корея будет объединена, и они смогу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новой независимо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цев видело на Севере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ибо перспектив учебы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или получения работы в Японии в силу предубеждений 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по этническому признаку было немного.

В декабре 1959 г. во время первого месяца репатриации 2, 942 человека переехал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за ними последовали 48, 956 в 1960 году и 22, 201 человек в 1961 году. До 1967 г., как подсчитано,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их репатриантов в КНДР составила 88, 611 человек. Репатриация достигла своего пика в 1960-1961 гг. после свержения лисынмановского режима. Корейцы в Японии полагали,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скоро падет и вскоре произойдет воссоединение Кореи. Однако, при поддержке США кризис был преодолён и Южная Корея сумела встать на колени на ноги и осуществить рывок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Ким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д.и.н., профессор,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ведения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На Сахалине эксперты ответили на вопросы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вступлению с 1 сентября в силу технического регламента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рыбы 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а также введению обязательной электронной ветеринарной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ш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нференция организова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экспортеров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ограмме мероприятия - доклады члена коллегии по техническ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Валерия Корешкова, заместителя руководителя Россельхознадзора Николая Власо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федеральных ведомств, курирующих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торговлю, выступлени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я обратилась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а Щербина. Она подчеркнула значимость темы конференции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мплекс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более 1000 предприятий, - сказала она. - Мощност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области позволяют производить широкий спектр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е компании области добыли 766 тысяч тонн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что составило 17 процентов от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оказателя. Ежегодно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отрасли перечисляют в бюджеты всех уровней около двух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Более полутора миллиардов из этой суммы направляется в казну области.

При этом Вера Щербин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введение в действие технического регламента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юза, который устанавливает основные требования к процессам производств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хранения и реализации рыбы 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сократит возможности недобросов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апример, им будет сложнее заимствовать наименования чужих известных изделий,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емы оформления своей продукции, вводящие потребителя в заблуждения.

- Собравшие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ыба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мчатки, Приморья получили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задать вопросы авторам документ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 многие стороны работы отрасли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предложил свои уточнения и дополнения, - рассказал Герман Зверев, президент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экспортеров. - Мы получили 21 обращение от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затрагивают конкретные моменты. Например, сахалинцы выдвинули предложения, касающиеся температуры хранения рыбных пресервов, а также применения глазури. Ответы на все эти вопросы будут не только озвучен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ходе сегодняшней конференции, но и размещены на сайте Еврази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обжига керамики собрал на Сахалине более 3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В городе Невельске на юге острова уже в восьмой раз разожгли гигантский костер особой конструкции. В его основание были заложены около 200 глиняных изделий - работ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и любителей из го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дея праздника принадлежит двум женщинам - члену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Наталье Кирюхиной и известной японской керамистке Окае Хитоко. В 2010 году они привезли на Сахалин из соседней страны традиционную технологию обжига керамики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которая сохранилась там еще с каменного века. За 8 лет мероприятие ремесленников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роде оформилось в большо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Символично, что местом его проведения выбрана, так называемая, «новая земля». Это часть морского дна, которая поднялась из воды в результате землетрясения 2007 года и увеличила площадь города. В ны-

нешнем году событие проходит с 28 по 30 июля. Его гостями стали не тольк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и, но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Японии. Участниками - более 60 художников-керамистов и любителей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В первый день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состоялись мастер-классы в местной школе искусств.

- Было очень трудно, но интересно,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Елизавета Кулай, сотрудник анив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подавателя из Хабаровска Ирины Еремеевой, она впервые сделала чашку на гончарном круге. - Со стороны техника кажется простой, но когда начинаеш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аботать, все оказыв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о сложнее. В будущем хочу научиться этому ремеслу, и, возможно, даже преподавать его на Сахалине.

Полученные глиняные работы профессионалы и любители заложили в основание кострища, представляющего собой песчаную ограду. Главные условия при обжиге таким способом - на разогретую керамику не должен попадать холодный воздух и при этом ей необходимо «дышать». Поэтому сверху изделия укрыли соломой. После был построен огромный конусообразный костёр диаметром более 3 и высотой около 5 метров.

Кульминация праздника - его зажжение произошло уже в темное время суток. Главное действие сопровождалось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м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и фейерверком, а также большим концертом с участием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Всего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эта церемония стала еще одной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кой Невельска, которая притягивает туристов, делает культурную жизнь района и области более интересной и разнообразной. Фестиваль является хорошим примером дружеских связ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Японии, своеобразным мостом, связывающим наши острова. Э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сегодня, когда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выходят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В этот же вечер аналогичная церемония обжига керамики прошла и на соседнем с Сахалином японском острове Хоккайдо. Центром событий там стал город Вакканай - побратим Невельска на протяжении 45 лет. Управляя действием одна из основательниц сахали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керамистка Окае Хитоко.

- Мы отмечаем этот праздник совместно с вами, - подчеркнул прибывший в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од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по развитию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города Вакканай Сигекацу Окай. - От всей души хочу пожелать нам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чтобы наши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всегда связывали самые теплые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 Фестиваль из года в год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Желающих научиться гончарному ремеслу - масса. Приходят мамы с детьми, бабушки с внуками, к нам приезжают люди из других районов, регионов и даже стран. Люди получают настоящее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творчества, - отметил мэр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Владимир Пак.

- Сюда с семьей уже третий год приезжаем, нравится нам, да и родня здесь живет, - подтвердил слова градоначальника житель Владивостока Михаил Петеримов. - Отличный праздник, побольше бы таких в нашей стране.

Пламя большого костра освещало небо до глубокой ночи. Собравшиеся не спешили покидать праздник - на «новой земле» работали торговые ряды, летние кафе и детские аттракционы.

Процесс обжига керамики - длительный. Завершится он только через 3 дня. 30 июля готовые изделия извлекут из кострища и представят на выставке в Невельском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Авторам работ будут вручены сертификаты. А в течение всех выходных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круглые столы, творческие встречи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керамических изделий.

- Очень красивый, творческий праздник. Нигд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ичего подобного не проводится. Считаю, что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до поддерживать, и мы будем это делать, - рассказал Игорь Янчук, член попе-

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онда «Родные Острова».

Трети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Забег доб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рал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заранее подготовили 250 стартовых номеров. При этом они исходили из опыта предыдущих мероприятий. Однако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двухкилометровом забеге на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е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оказалось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Поэтому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человек вышли на старт без номеров. Участники забега, а также все желающие сделал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взносы в пользу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детей из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Маячок». Размер пожертвования каждый определял сам.

На преодоление дистанции у участников забега,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о много людей, увлеченных бегом, ушли считанные минуты.

- Сначала я взял очень высокий темп, - поделился победитель забега Федор Первушин, футболис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Сахалин», - и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думал, что не смогу дойти до финиша. Но потом соперники устали, сбавили скорость, и я смог финишировать первым.

- Трасса оказалась тяжеловатой для меня, - очень много горок,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льга Метропольская. Она смогла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ю первой среди девушек. - Но расстояние все же небольшое, поэтому сил хватило. Мне нравятся бег, я совершаю пробежки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Узнала о мероприяти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м и подумала: почему бы не принять в нем участие, тем более с такой благой целью?

А среди девочек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стала шестилетняя Настя Львова. О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занимается спортом и смогла пробежать дистанцию, потому что «была сильная».

В результате акции было собрано 178930 рублей. Все эти средства переданы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Маячок»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т свои лучшие иннова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Они буду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ся в павильон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ое состоится в сентябре на острове Русском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Это четыре проекта от сахалинских разработчиков: «Электроразряд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рециклинга железобетонных изделий», «Разработка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для обработк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х данных наземного микросейсмическ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гидроразрыва пласта», «Беспилотные авиа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для работы в море, прибрежной зоне и Арктике», а также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для мониторинга побережья». Их авторы смогу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на форуме свой продукт,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потен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оров, наладить отношения с российскими и зарубеж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 будущими потребителями инновационных решений.

Проекты были отобраны в результате тренинга по разработке бизнес-моделей,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отделением Фонда «Сколков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заинтересовала более 30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зобретателей, ученых. Самый молодой из участников тренинга недавно получил диплом о высшем образовании, старший - разменял седьмой десяток. Первоначально разработчики представили 22 проекта. Команда экспертов изучила степень их готовности к выходу на рынок, детально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а риски, сильные и слабые стороны бизнес-моделей, и выбрала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오감으로 모국을 체험한다' 2017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개최!



전 세계 재외 동포 대학생들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이 주최하는 '2017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가 8월 1일(화)부터 7박 8일간 서울과 전라북도를 오가며 진행된다.

재단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직접 체험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토록 매년 모국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1개국 160여 명의 재외동포 대학생 및 예비대학생들이 모국을 방문한다.

첫 날에는 입소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함께 참가한 또래 친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다음날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진행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연수 사흘째인 3일(목)에는 파주 임진각 DMZ를 방문해 대한민국 분단의 역사를 배우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전라북도로 이동해 무주의 국립태권도원, 진안 농촌

마을, 전주 한옥마을을 차례로 방문, 모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한다.

서울로 다시 돌아온 참가자들은 6일(일) 광화문 광장에서 약 20여개의 단체들과 함께 진행되는 세계 인도주의의 날 공동캠페인 기념행사에 참여해 아리랑 퍼포먼스 플래시몹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7일(월)에는 '한반도 통일, 동북아 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세계한인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오전에는 인권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토론했고, 오후에는 나라별 수석 대표가 평화적인 논의 및 협상을 통해 결의안을 도출하는 모의 6자 회담을 진행하며 국가별 평화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 폐회식을 끝으로 모국연수를 마무리한다.

주철기 이사장은 '미래의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어갈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여길 수 있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모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배우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재외동포 대학생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말로 깨닫다]

대통령과 압존법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지칭을 하여야 할까? ① 대통령은 ② 대통령께서는 ③ 대통령님께서는 ④ 대통령님중에서 무엇이 맞는 답일까? 아마도 쉽게 무엇이라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표현들을 이미 방송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다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굳이 어색한 표현을 들자면 ①번이 아닐까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서는 ①번의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를 존중해주는 것이다. 듣는 이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 불쾌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압존법을 청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청자도 화자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높임을 허용해 주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의 경우에 손자가 자기 아버지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편이라는 의미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대통령은'이라고 표현하고, '말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놀랐다. 오랫동안 청와대 대변인 등의 말을 들으면서 웬지 어색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압존법의 문제다. 압존법이라는 표현을 종종 '압존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마치 더 앞에 있는 사람만 높이는 것이라 착각하는 듯하다. 압존법(壓尊法)은 존대하려는 마음을 눌러서[壓]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어른을 공대할 때 더 높은 어른 앞에서는 공대를 하지 않는 법칙이다. 자주 드는 예로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것이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압존법이다. 논리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주는 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 화법에서는 압존법이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다.

압존법은 청자 중심의 높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자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높임을 하지 않음으로써 듣는 이

를 존중해주는 것이다. 듣는 이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 불쾌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압존법을 청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청자도 화자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높임을 허용해 주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의 경우에 손자가 자기 아버지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편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라고 해도 그다지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여전히 "할아버지, 형께서 오셨습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청자와 제 3의 대상의 간격과 말하는 이와 제3의 대상의 간격이 비슷하면 용납이 되는 듯하다. 아무튼 여전히 복잡한 문제이다. 앞으로 압존법은 점점 힘을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다시 청와대 대변인의 말로 돌아가 보자. 압존법에 따르면 청와대 대변인이나 관계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에게 말할 때는 대통령과 국민 중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통령님께서는'이라고 하거나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님은'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변인은 국민이 더 높다고 보고 '대통령은'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은 다른 청와대 수석들의 표현에서도 발견되었다. 물론 여전히 '대통령님께서는'이나 '대통령께서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과 국민은 누가 더 높은가? 당연히 국민이 높지 않을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니 당연히 국민이 높다. 만약 왕이었다면 다르게 생각했을 수 있다. 아마 왕이라면 왕이 국민보다 더 높다고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그야말로 일꾼이다. 당연히 국민이 더 높다. '대통령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또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하였다'가 맞다.

하나 덧붙이자면 대통령과 대통령님의 관계는 어떠할까? 대통령님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로 기억하는데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이 생기게 된 이유는 각하와 관련이 있다. 각하라는 표현이 대통령에 대한 지칭이자 호칭이었던 때가 있다. 그런데 각하라는 말은 국민보다 대통령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각하라는 지칭과 호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지칭에서는 각하 대신에 '대통령은' 또는 '대통령께서는'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호칭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을 부를 말이 사라진 것이다. 전에는 그냥 '각하!'하고 부르던 되었는데, 각하를 쓰지 않으니 '대통령!'하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라는 말이 생겼다. 굳이 보자면 대통령님은 지칭에는 필요 없는 말이다. 호칭에서만 필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호칭과 지칭도 점점 민주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3

한국 고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했지요?

(전호의 계속)

읽기 연습 Чтение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춘향전

숙종대왕 초 전라도 남원에 사는 월매는 성 참관과 동주(同住)하여 춘향이라는 예쁜 딸을 낳았다.

춘향이 성장하니 자색이 빼어나고 시화에 능하였다.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춘삼월을 맞이하여 방자를 데리고 남원의 유명한 광한루에 올라 풍경을 감상하며 시를 읊다가, 춘향이 시비 향단을 데리고 광한루 앞의 시냇가 버들숲에서 그네를 뛰는 것을 목격한다.

이몽룡은 첫눈에 마음이 동하여 방자를 시켜 만나 보고 그날 밤에 집으로 찾아가 춘향의 모 월매에게 자기의 결심을 토로하고 춘향과 백년해로의 가약을 맺는다. 그들은 이내 깊은 사랑에 빠졌으나 이몽룡의 아버지가 갑자기 서울로 영전하게 되어 부득이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새로 내려온 부사 변학도는 호색가여서 춘향이 (1)절세미인이란 말을 듣고, 수청을 명령한다.

그러나 춘향은 (2)일부종사(一夫從事)를 앞세워 거절하다 옥에 갇혀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한편 서울에 올라온 이 도령은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마침내 호남 지방의 (3)암행어사가 되어 내려 온다.

춘향이 옥중에서 신고(辛苦)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부사의 생일 잔칫날 각 읍 수령이 모인 틈을 타서 여사출도를 단행하여 부사를 (4)봉고파직하고 춘향을 구출한다. 이 도령은 춘향을 정실부인으로 맞아 (5)백년해로한다.

1. 밑줄 친 단어들의 뜻을 쓰세요.

- 1)
- 2)
- 3)
- 4)
- 5)

2.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이 더욱 애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위의 글을 쉬운 말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과제 학습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1. '-아/어/여 빠지다, -아/어/여 치우다, -아/어, 여도 과언이 아니다, -았/었/였던지, -았/었/였던들'을 사용하여 문장을 각각 두 개씩 만드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여러분의 나라에도 고전 소설이 있지요? 가장 재미있게 읽은 고전 소설의 줄거리를 써 봅시다.

(끝)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의 4개 쇼핑센터에 특별수집함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시민들로부터 학용품, 책, 교과서, 가방 등을 수집하게 된다. 이 활동의 조건 중 하나는 모든 물품은 새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8월 28일까지 수집지는 다음 쇼핑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스톨리차>상업비즈니스센터의 2층 <아즈 부카 제트스트와>아동용품 슈퍼마켓

<사할린>백화점, 1층(레닌 거리, 123)

<아믹스>문구용품점(푸르카예와 거리, 110)

<류비텔리>상점(레닌 거리 239B).

학용품 전달식은 8월 18일 가가린 문화휴식공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시 청년 이니셔티브센터는 <신학년 준비 도와주기>행사를 201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신학년 준비에 약 250명의 학생들을 도왔다고 센터가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цы помогут юным горожанам собраться в школу

1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а традиционна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добровольческая акция "Помоги собраться в школу". Главная цель меро-

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центром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 помощь детя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подготовке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В этом году акция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конкурса "Семья и город — растем вместе".

В проведении акции буде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около 20 активистов волонтерск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ебята будут рассказывать горожанам об акции и о том, как можно принять в ней участие.

В четырех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становл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урны, где горожане могут оставлять канцелярски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ниги, учебники, портфели. Одно из условий акции — вещи должны быть новыми.

Пункты сбора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до 28 августа в следующих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 супермаркет детских товаров "Азбука детства" в ТДЦ "Столица", второй этаж (улица Комсомольская, 259в);

• универмаг "Сахалин", первый этаж (улица Ленина, 123);

• торговый дом "Амикс" (улица Пуркаева, 110);

• магазин "Любитель" (улица Ленина 239В).

Вручение школьных комплектов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состоится 18 августа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Гагарина.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проводит акцию "Помоги собраться в школу" с 2013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к школе было собрано около 250 детей, сообщает ЦМИ.

(сahal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광고

8월 11일(금) 오전 11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앞마당에 위치한 사할린한인 이중징용광부 피해자비 앞에서 동포희생자 추모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사할린한인이중징용광부유가족회 서진길 회장

광복절 기념행사

2017년 8월 19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광복 72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명절 행사 프로그램:

10시-10시 30분 -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남부사할린 및 쿠릴열도 해방자 영예기념종합기념관에 헌화.

11시 - 13시 -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광복 72주년 기념행사 개막, 공연프로그램에는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리리 강원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가 참가한다.

14시-17시 - 스포츠게임, 오락프로그램, 씨름, 춤, 대중놀이, 노래콘쿨.

광복절 기념행사조직위원회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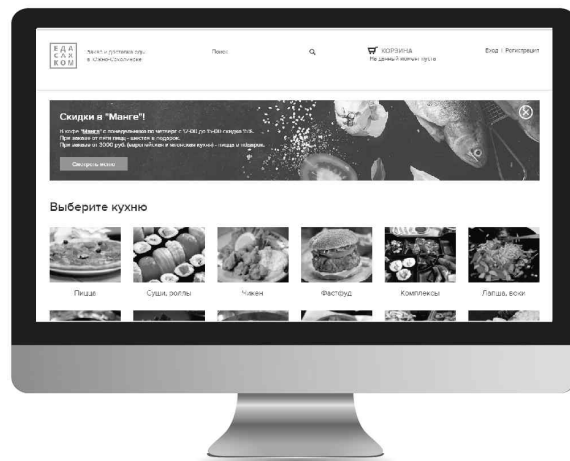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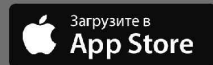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т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